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투 플러스 원’ 엄마들

김 종 광
소설가

어떤 선배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집 사람 일하니?” “두어 달 일하고 한 달 쉬어요.” “투 플러스 원(2+1)이구나. 다 그래.” 연전엔 아내만 그런 줄 알았는데, 21세기 한국 주부 상당수가 ‘2+1노동’ 중이었다. 왜 끈덕지게 일을 못해?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도 있겠지만, 엄마들은 ‘2+1’일 수밖에 없다.

엄마가 아이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싶기 무섭게 호환 마마처럼 아이 과외비가 다가온다. 엄마는 학원비라도 벌어 볼 요량으로 일자리를 구한다. 결혼과 출산과 육아의 세월 동안 이미 경력 단절 여성이 되었으니 무슨 ‘맥’(脈)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미혼 때의 경력을 살리는, 재능을 살리고 보람도 얻을 수 있는,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인……, 암튼 마음에 드는 흡족한 직장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언제든지 주부들을 환영하는 일들이 있다. “구인광고 보고 전화했는데요……” 하자마자 어서 와 보시라고 하는 곳들. 형식상 이력서도 내고 면접도 보지만 거의 일단 채용된다. 바로 3디(D) 업체들이다. 깨끗하다 할 수 없고(Dirty) 어렵거나(Difficult) 위험한(Dangerous) 일을 하는 곳. 콜센터, 청소, 간병, 식당, 캐셔, 판매, 막일, 도우미, 공장 등….

이 일들은 노동의 대가도 아주 적다. 갖은 까닭으로 덜 주려고 한다. 고용주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줄 수밖에 없기는 하다! 고용주는 정부 법 탓을 하는데 확실히 법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돈보다 더 문제는 이런 일들의 속성상, 무수히 받는 상처다. 육체적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 고용주에게만 받는 게 아니라 소위 중간 관리자한테도 받고 동료끼리도 주고받는다. 물론 가장 큰 상처를 주시는 분들은 ‘고객님’들이다. 상처로 너덜너덜해지니 사흘 넘기기 어렵고, 삼 주 버티기가 어렵고, 석 달 넘기기가 벅차다. 3디 노동은 본디 (한 곳에서 오래 일하기가 힘들어)잦은 퇴직과 이직이 당연지사라는 얘기다.

다시 직장을 구하기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것도 당연하다. 두어 달 일하는 동안 몸과 마음이 상당히 고장 났기에 치유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그 고생을 했으니 다음 일할 곳을 찾을 때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오래 쉬지도 못한다. 엄마가 버는 돈은 ‘학원비+알파(대출 이자)’라고 보면 틀림없다. 엄마는 쉬어도 아이가 학원을 쉴 수는 없기 때문에, ‘두’ 달 일한 후, 쉰다기보다 전전긍긍하는 기간이 길어야 ‘한’ 달인 것이다.

대우가 웬만하고 사람대접 해 주며, 보람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동의 기쁨을 주는 업체라면. 당연히 그만두거나 옮기고 싶지 않을 것이다. 대개의 엄마들이 ‘2+1’이라는 것은 가는 곳은 대우가 웬만하지 않고 보람을 얻기는커녕 상처투성이가 된다는 증거다. 물론 한 번 들어간 곳에서 오랜 기간 일하시는 분들도 숱하게 있긴 하다.

직장이 괜찮은 곳인 경우라면 그런 일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인내심이 뛰어난 경우라면 그분들의 인내심 때문에 투 플러스 원 엄마들이 모욕받아서는 안 된다. 참는 게 능사만은 아니다. 못 참고 나올 수도 있다! 사실 못 참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뤄지는 게 개선이다.

투 플러스 원 아내를 둔 남편의 마음도 편할 리 없다. 돈은 남자만 벌어야 한다는 가부장적 혹은 마초적 사고를 가진 이뿐만 아니라 당연히 같이 벌어야지 생각하는 이라도 아내의 밤새 끙끙 앓는 소리를 견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투 플러스 원 엄마를 둔 자식의 마음도 편하지 않을 터이다. 엄마의 노동을 긍휼히 여겨 공부를 열심히 해 주면 좋겠는데, 성장하는 마음의 복잡함을 또 어찌 짐작하랴. 하지만 자식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자기들이 동수저급 혹은 흙수저급 경쟁이라도 하려면 엄마가 최소 투 플러스 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엄마들이, 3디(D)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엄마들이, 보다 정당한 대우를 받고, 보다 상처를 덜 받으려면, 이들 업계가 보다 사람답게 일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법부터 제대로! 국회의원들도 그런 노동을 해 봐야 정신 차린다.

종교칼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내가 먼저 변하자

장 형 규
원불교 사무국장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기원하는 것이 바로 ‘가족의 행복’이다. 단언컨대 가족의 행복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 어떤 행복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싶다. 가족의 행복을 원하는 이는 내가 변해야 가족의 행복을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이 나의 마음에 맞게 변화되기를 원한다. 서로서로 나의 긍정적 변화는 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변화만 원하고 있기에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다.

기해년 새해에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나를 변화시키자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가정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사실 행복은 저 언덕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지금 내가 또 다른 행복을 갈구하고 있다면 나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처한 가족 안의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는 사람은 절대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의 행복을 위한 나의 마음 자세의 변화로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는 가족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은 확연해진다. 오직 지금 여기만이 행복의 터전이다. 특히 가족은 행복의 숙명이다. 가족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기쁘게 맞이하고 절실하게 영접해야 하는 대상이다. 배우자가 동창 모임을 다녀와서 누구는 명품을 가져왔고 아파트가 몇 채가 있더라고 타인의 가족과 비교를 하며 투정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필자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부잣집 아버지가 본래 나의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는 철없는 생각도 해보았다. 지금 돌이켜보니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다. 나에게 아버지의 방식으로 가장 큰 사랑과 관심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가족 안에서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 결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아본들 행복은 찾아지지 않는다. 가족은 행복은 원천이기 때문이다.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다. 네잎클로버를 찾고자 세잎클로버를 발로 짓밟으며 네잎클로버를 찾는다. 하지만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다. 지금 여기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로 밟으며 행운을 찾으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아니다. 우리가 인생의 참 의미를 찾는 것은 행복을 구하는 데 있지 않고 행복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

둘째로 무엇이 중한 것인지 아는 것이다. 부부 싸움이나 형제, 자매간의 다툼을 할 때 무엇이 중한 것인지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가족 간에는 법이 필요 없다. 명분이 필요 없다. 부처님께서는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괴로움이 없다고 하셨다. 가족 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 무엇이 중한 문제인가, 생각해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교도님들의 가족 가운데 명절 때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가족이 있었다. 이 다툼이 있는 가족이 SNS 단체톡방을 만들어 서로간의 이야기를 공유하게 되었다. 그러자 소통을 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의 환경을 이해하게 되고 지금은 화기애애한 가족 간의 인연을 지속하고 있다.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게 되면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갈등이 아닌 애정의 마음이 오가게 된다. 가족이 잘될 때 누리는 기쁨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다.

가족 구성원 중에 소원한 관계가 있을 때,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안아줘야 한다. 더욱 중요한 인생의 가치는 명분과 자존심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행복을 찾고 행복을 전하는 것임을 매순간 깨달아야 한다.

옷깃만 스쳐도 오백생인연이라 했다. 하물며 가족으로 만난 인연은 더욱 절실한 염원이었으며 숙명적인 인연인 것이다. 기해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소원을 빌기 전에 우리 가족의 행복을 기원해보자. 또한 기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소중한 가족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보고 실행해보자. 바로 내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과정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기 고

광주 ‘동·북구’ 통합 ‘무등산구’로 하자

곽 복 률
광주전남민언련 이사

광주동초등학교는 동구에 있지 않고 광주시 북구 석곡로에 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요금소 또한 동구와는 무관한 북구 장등동에 있다. ‘주민 의견 무시한 동구 편입 절대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보며 초등학교 4학년생인 아들 녀석이 내게 묻는다. ‘아빠 북구가 어려워서 동구에 팔려고 그런 거예요?’라고. 딱히 설명하기 어려워 ‘동구가 어려워 북구에서 떼어주려고 하는 거란다.’고 군색한 대답을 하면서 웃음이 터졌다.

현재 광주시 행정구역 자치구간 경계 조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시점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치구 명칭을 도입해 광주의 가치를 재창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 10만 명도 되지 않는 동구와 40만 명이 넘는 북구를 통합해 ‘무등산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동구의 원효사 지구와 북구의 증심사 지구로 나뉘어 있는 국립공원 무등산 관리 지자체를 하나로 묶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북구의 일부와 광산구의 일부를 떼어내 가칭 ‘첨단구’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동서남북의 방위 개념을 답습한 광주시 자치구 명칭이 광주시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방위에 맞지 않을뿐더러 지역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하지 못한 명칭이기 때문이다. 부산의 해운대구나 경북 울진의 금강송면처럼 말이다.

바다, 호수, 강이 없는 내륙 도시 광주에서 무등산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찾을 수 있고 조망할 수 있는 바다요 호수와 같다. 이 무등산 정상의 세 봉우리 천(天), 지(地), 인(人)은 삼재(三才)를 중심으로 시간, 공간, 인간이 공존하는 우주를 뜻하는 주역 철학이 스며있는 영험한 산이다.

그러나 이제는 무등산을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바라다볼 수 없게 돼버렸다. 실개천 하나 없는 사막화된 광주라는 도시의 최대 비극적 요소는 건설 자본에 의한 거의 무제약적인 물리적 팽창의 과정과 싹쓸이식 도심 재개발에 있다. 동개천과 용봉천의 꿈틀거리는 도심의 생명을 어거지로 덮어 하수구로 만들어버린 야만 앞에 광주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광주는 최근 20~30년 사이에 상업의 중장로와 금융의 금남로를 포함한 구 도청 중심 단핵 집중의 도시에서 여러 구심점을 갖는 다핵적 도시로 변화했다. 그간 광주시의 주택 정책은 공급이 까다로운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보다는 도심 외곽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공급하여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는 정책이 중심이 되었고, 이러한 정책의 직접적인 산물이 동구와 북구의 쇠퇴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봉책 수준의 자치구간 경계 조정은 획기적인 경제, 문화, 교육 여건 개선이 없을 경우 다시 더 좋은 조건의 지역으로 인구 유출만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광주라는 도시가 끊임없이 물리적으로 직선적인 팽창을 계속해 왔다고 한다면 그 팽창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제한의 원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광주는 팽창의 논리만 생각했지 제한의 논리를 생각지 못했다. 피렌체(Firenze)나 산토리니(Santorini), 교토(京都)가 건물의 고도와 색깔을 제한하여 고도(古都)의 특수성을 유지하는 것과도 같은 여러 방식의 제한성은 모든 도시의 필연적 요소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용적율 제한, 대지의 소유 범위 제한, 수평적 범위의 제한, 교통의 제한,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비율 제한 등 이러한 모든 제한성은 도시의 원리로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가치인 것이다.

광주의 구도심인 중앙초등학교 인근에 18층짜리 고층 업무용 빌딩이 들어선다는 얘길 들었다. 안될 일이다. 확대의 논리에는 반드시 제한의 논리가 필요하다.

도시도 하나의 생명체이다. 생명이라는 유기체가 탄생과 죽음이라는 필연적 운명을 거역할 수 없다면 도시도 탄생과 죽음이라는 희비의 드라마를 연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광주라는 도시는 1896년 나주 단발령 사건으로 나주에 있던 관찰부가 광주로 옮겨오면서 시작되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다. 사멸해버린 문명과 더불어 폐허만 남긴 채 관광객의 발길만 끌고 있는 죽음의 도시를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자치구 구간 경계 조정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름만 들어도 광주의 정체성과 유래가 한눈에 그려지는 ‘광주광역시 무등산구’를 함께 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社 說

택시요금 인상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야

광주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5년 만에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돼 오는 10일부터 적용된다. 광주시는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요구해 온 택시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물가대책위원회를 연 끝에 기본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택시 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대다수 시민들은 택시 업계의 서비스에 불만을 표출한다. 택시 서비스에 관한 민원만 보더라도 2016년 907건, 2017년 1104건, 2018년 1439건 등 매년 상승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2018년 기준 불친절 499건, 승차 거부 278건, 부당 요금 275건, 합승 26건, 도중하차 65건, 호객 행위 18건, 미터기 미사용 28건 등이었다. 시는 불친절 등으로 적발될 경우, 택시 업체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각각 과태료와 과징금 20만 원씩을 부과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을 계기로 승객 불만족 신고가 접수되면 과태료·과징금 처분과 함께 기존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중단하는 규정을 지난해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라도 친절도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인데 시의 이 같은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물론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택시 기사에게 친절까지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시는 요금 인상이 택시 기사들의 근로 환경과 임금 등 복지 개선에 스며들어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선순환 정책을 펴야 한다. 무엇보다 요금 인상 혜택이 소비자, 택시기사, 업계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택시 업계도 이번에는 대중교통에 걸맞은 서비스 품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광주가 대중교통 불친절 도시라는 그동안의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순자 망언’ 부부가 함께 치매 걸렸나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의 망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일 인터넷 극우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남편인 전두환을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인터뷰에서 이 씨는 “조금 전의 일을 기억 못하는 사람에게 광주에 내려와서 80년대 얘기를 하라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다”고 주장했다. 오는 7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전두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 씨는 또한 “전직 대통령이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광주는 치외법권적인 존재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했다. 이어 이 씨는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다.

이 씨의 망언에 광주 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역시 즉각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망언이라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라고 비판했다. 5월 단체들도 이 씨의 망언은 5·18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라며 격앙된 모습이다.

이 씨의 망언은 5·18 유족은 물론 광주 시민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민주주의를 말살한 5·18 가해자를 가리켜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니 기가 막힐 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부가 함께 치매에 걸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보수 세력 결집을 통해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 가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망상이다.

이 씨의 망언은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발포 명령을 비롯한 진상이 규명되고 그에 따라 책임자 처벌이 이뤄졌다면 이런 망언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無等鼓

장애와 불구

어느 사회에서나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항상 갈등 요소를 품고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다양한 척도가 있겠지만 그중 장애인 복지 또한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바람직한 공동체인지를 보여 준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정의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이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차별은 당연히 지탄의 대상이 된다.

의학이 발달할수록 장애인이 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장애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간 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 노인 열 명 중 한 명이 치매를 앓는 등 정신 장애인도 급증하고 있다. 크고 작은 장애를 합하면 국민의 10% 이상이 장애인이라는 통계마저 있다.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장애인은 특이한 존재가 아닌 아프거나 다친 이웃이다.

학자들은 수백 년 전인 조선 시대만 해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선진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한다. 조선 시대 사람들은 장애인을 간질, 폐질, 병신(현대어에서는 비하의 뜻으로 쓰이지만)처럼 한자 그대로 ‘몸이 아픈 사람’ ‘몸에 병이 든 사람’으로 보았다. 따라서 장애인은 아픈 사람이니 건강한 사람이 도와줘야 한다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갖게 했다. 조정에서도 소경이나 맹인 등으로 불린 시각장애인에게 점을 치는 점복, 경을 읽어 질병을 치료하는 독경,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 같은 직업을 주어 자립토록 했다. 더욱이 스스로 살아가기 어려운 장애인은 지방 관아에서 책임지고 구휼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부터 장애인은 ‘불구자’(不具者), 즉 한자로 아니 ‘불’(不)자에 갖출 ‘구’(具) 자를 써서 ‘다 갖추지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 등과 같이 비하의 대상으로 여기게 됐다. 그리고 이 같은 생각은 부지불식간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얼마 전 행사에서 “신체 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 장애인이 많이 있다”라는 발언으로 비난을 샀다.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비중 있는 정치적 지도자가 장애인을 정상이 아닌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듯해 씁쓸하다.

/채희종 사회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